

그림에게 말 걸기 12

두려움과 맞서다 _ 에드바르 뭉크

글. 남우주 그래픽 디자이너 / 무지크바움 실장

예전엔 회전무대라는 놀이 기구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원판 위에 올라가 손잡이를 붙잡고 “돌려!” 하면 밖에서 아이들이 회전무대를 돌렸다. 일명 ‘뽕뽕이’로 불렸다. 천천히 돌아가면 가볍게 어지럽다가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주변의 색색의 띠로 변할 만큼 정신이 없었다. 장난기가 심한 아이가 멈추지 않고 더 세게 ‘뽕뽕이’를 돌리면 회전무대 안의 아이들은 탄성과 비명을 질렀다. 게 중의 한 아이가 울 때까지 돌리고 돌리다가, 누군가 “이제 그만해!”하고 소리를 질러야 돌리는 일을 멈췄다. 회전무대가 멈추면 심한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종종 주저앉아 우는 아이를 일으켜서 달래야 했다. ‘뽕뽕이’의 묘미는 평형감각이 무너진 혼돈의 감각과 튕겨 나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데 있었다. 재미있는 건 무서워서 울던 아이 중에, “나 또 탈래.”라고 말하는 아이가 꼭 있었고, 이번에는 중심 가까이 있는 기둥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버텼다.

회전무대를 즐기는 아이, 즐기지도 않고 무서움도 느끼지 않는 아이, 한번 타고 다시는 타지 않는 아이, 무서워 울지만, 끝까지 버텨내는 아이. 아이들은 다양한 양태로 회전무대에 올랐다. 뭉크는 마지막 아이와 같았다.

절규

에드바르 뭉크(Edvard Munch)는 노르웨이의 대표 화가이자 표현주의의 대가로 불린다. 그를 잘 몰라도 그의 그림 <절규>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늘은 핏빛이고 불안하게 사선으로 놓인 다리 위에서 해골 같은 남자가 두 손을 뺨에 대고 입을 벌리고 있다. 일그러진 공간과 형태가 왜곡된 인물은 강렬한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 낸다. 무슨 일이지? 얼마나 괴로운 일을 당했길래 저리도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

“나는 두 친구와 함께 걸을 걸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약간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변했다. 나는 심한 피로감에 멈춰 서서 난간에 몸을 기대었다.
불타는 듯한 구름이 짙푸른 피오르와 도시 위로 피 물은 검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지만 나는 불안으로 몸을 떨며 서 있었다.
자연을 꿰뚫는 거대하고 끝없는 절규가 들리는 듯했다.”

- 1892년 1월 22일, 니스에서 쓴 일기 중에서 -

그의 일기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보면 몽크는 어떤 강렬한 체험에 휩싸인 것 같았다. 그의 일기장에는 1891년 쯔부터 1892년까지 이 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것은 바로 도박이었다. 그는 지인과 호기심에 들린 몬테카를로 카지노에서 거대한 욕망의 소용돌이와 맞닥뜨린다. 담배 연기와 다양한 향수 냄새가 뒤섞이고 신분이나 체면 같은 사회적 통념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공간.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서 “죽어 버릴 거야!”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잘 차려입은 부인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는 등 광기로 가득한 시뻘건 눈들이 돌아가는 룰렛에 고정된 곳. 절망에 빠져 목숨을 끊는 사람들과 연이은 승리에 벵크부자의 꿈을 꾸는 사람까지. 극단의 쾌락과 절망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카지노라는 장소에 몽크는 매혹되었다. 방에 누워 있으면 천장에 룰렛이 돌아가는 환영이 보이고 ‘이제 가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도 모나코로 가는 첫차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날이 밝기도 전에 나는 옷을 차려입는다. 모든 게 너무 달라 보였다.
나는 강해진 느낌을 받았다. 나는 끊임없이 이 병적인 기억들로 시달렸던
그 신경질적인 늑이 더 이상 아니다. 그때 거의 바람이 다 빠진 풍선 같았다.”

- 니스에서 쓴 일기 중에서 -



절규, 1893



불안, 1894



몬테카를로의 룰렛 테이블에서, 1892

그는 생생한 힘의 장에서 두려움과 동시에 희열을 느꼈다. 그의 대표작 <절규>는 많은 사람이 근대인의 불안한 초상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동시에 군더더기 없는 욕망의 힘과 절망과 같은 죽음의 힘, 그 사이에서 내지르는 몽크의 비명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같은 비명은 양극단의 에너지 사이에서 다양한 작품의 형태로 태어났다. 생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몽크 예술의 원동력이었다.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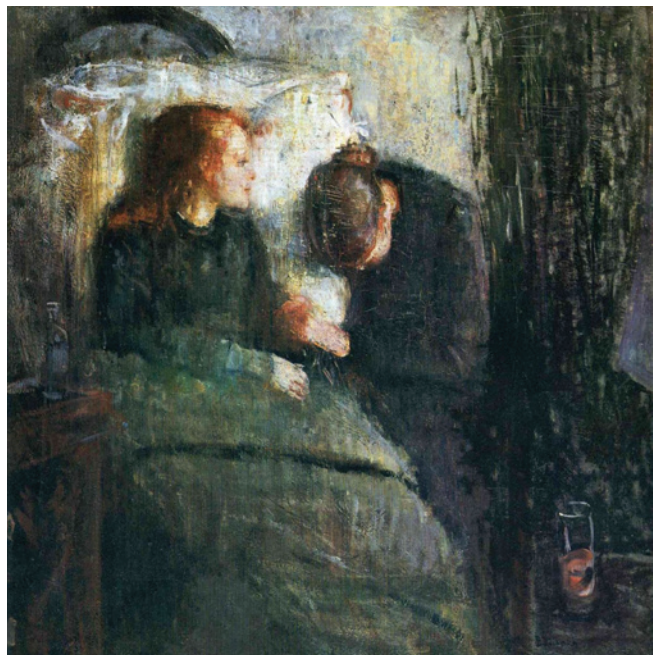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과 슬픔,
죽음의 천사들이 내 곁에서 있었다.”

몽크의 말은 뒤에 이렇게 이어진다. 죽음의 천사들은 밖에서 놀 때도 심지어 봄의 햇살과 찬란한 여름에도 있었다고. 정말로 죽음의 천사들이 그를 따라다니는 것만 같았다. 그가 다섯 살 때 결핵으로 사망한 어머니. 그리고 그녀와 똑같이 결핵으로 열다섯을 넘기지 못한 누이 소피. 남동생인 안드레아스마저 몽크가 이십 대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다. 가족의 죽음은 어려서부터 목도한 몽크의 마음은 살얼음처럼 취약해졌다. 몽크는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모호한 두려움

을 슬픔의 구체적 형상으로 치환한다.

그림을 배운 뒤, 그는 죽은 누이에 대한 기억을 주제로 그림 한 점을 그렸다. 병상에 누워 있는 소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인. 그런 여인을 오히려 위로하려는 듯한 소녀의 달관한 표정에 작은방이 울음을 터트릴 것만 같은 그림이었다. 몽크는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그린다’라는 자신의 예술관처럼 누이에 대한 기억을 여러 번 소환하는 방식으로 이 작품을 만든다. 기억이 매끈하지 않은 것처럼 때론 기억에 여러 가지 정서가 혼합되는 것처럼, 그는 물감을 여러 번 칠하고 칼로 물감을 긁어내고 또 다른 색으로 덧칠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병든 아이>였다.

이 작품은 1886년 크리스티아니아에서 열린 연례 전시회에서 격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미완성인 듯한 기법이 주된 비판의 이유였다. 사람들은 아직 몽크의 새로운 화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병든 아이>는 이후 몽크 스타일의 기초가 된다. 마치 여러 번 그리면 그 감정이 희석이라도 되는 듯이, 몽크는 이 그림을 석판화, 파스텔, 유화, 드라이포인트 등 다양한 버전으로 표현한다. 이후에도 몽크는 슬픔, 두려움, 질투, 외로움 등 자신을 사로잡은 감정을 반복해서 그려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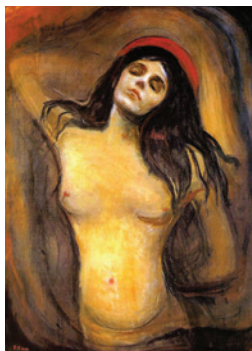


병든 아이_1885~86

여성

몽크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몇 번의 사랑을 했지만, 아픈 상처로만 남았다. 그에게 여성은 두려움과 동시에 매혹스러운 대상이었다. 몽크의 이런 여성관은 그가 참여한 예술 그룹을 통해 점점 강화된다. 몽크는 1884년 노르웨이에서 ‘크리스티아니아 보헤미아’ 그룹의 정회원이 되는데, 이 그룹의 멤버는 무신론과 진화론을 주장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개방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자유연애를 주장했다. 듣기에는 쿨한 주장이었지만 실제 그들은 쿨하지 못했다. 의심과 질투, 배신과 괴로움의 감정 등 무분별한 사랑은 서로에게 극심한 상처만 남길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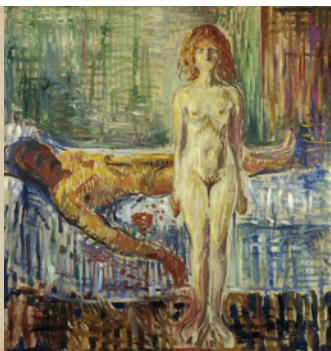
1892년 겨울, 독일로 간 몽크는 ‘슈바르젠 페르켈’이라는 모임과 교류하게 된다. 이 그룹의 멤버는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세기말에 유행하던 상징주의와 데카당스를 논했다. 그들에게 여성은 위험한 존재였다. 몽크는 1898년, 마치 자신의 여성관을 증명이라도 하듯 톨라 라르센이라는 ‘치명적인 여성’을 만난다. 그들은 몇 년간 열애하지만, 결혼과 안정을 요구하는 톨라와 독립적인 예술가로서의 삶을 꿈꾸는 몽크는 잦은 충돌을 일으켰다. 결혼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극단적인 톨라에게 어찌할 바를 모르던 몽크는, 마지막 만남에서 돌연 자신의 왼쪽 손가락에 총을 쏘고 쓰러진다.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마침내 톨라는 떠났다. 그는 다년간 이 사랑의 고통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 헤어진 지 3년이 지난 뒤에 <톨라와 함께 있는 자화상>을 완성하고, 감정적 내상을 완전히 끝내려고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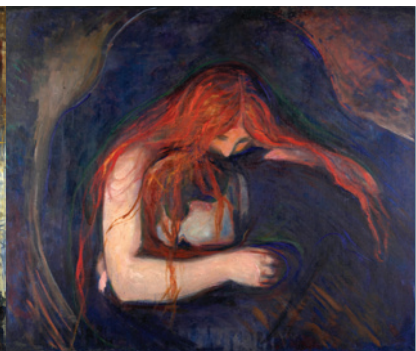
마존나_189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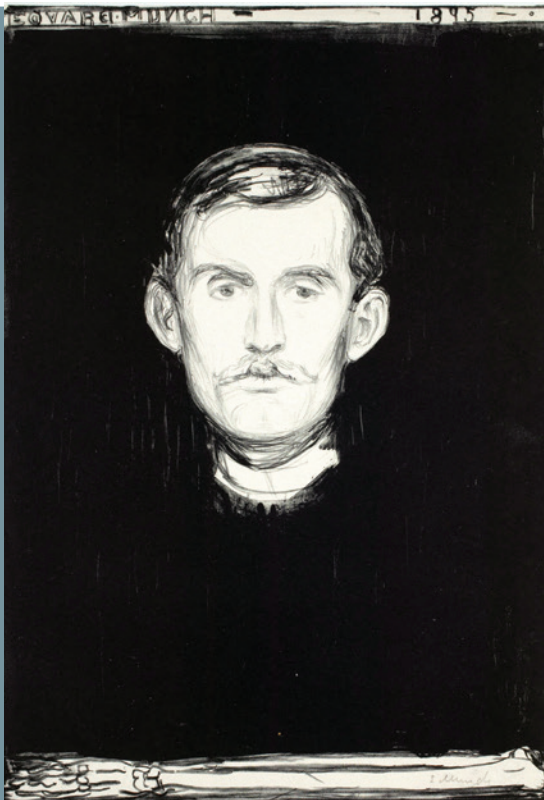
질투 II_1896



마라의 죽음 II_1907



흡혈귀_1893~94



팔뚝이 있는 자화상_1895



포도주병이 있는 자화상_1906



밤의 방랑자_1923_24



시계와 침대 사이에 있는 자화상_1940~42

듯 굳이 그림을 반으로 자르기까지 했다. 그 후로도 1908년까지 톨라가 남긴 상흔은 그림 속에 여러 번 변주된다.

자화상

몽크는 평생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다. 70점이 넘는 회화와 20여 점의 판화 그리고 100여 점의 수채화와 드로잉으로 자신을 표현했는데, 몽크에게 자화상이란 내면을 기록하는 일기였다. 이 ‘그림일기’는 스페인 독감에 걸렸을 때도, 노년의 고독한 생활과 죽음을 앞둔 말년에도 이어졌다. 몽크는 자신을 미화하지도 왜곡하지도 않고 지금 자신의 생생한 존재를 기록하고 싶어 했다. 강박적으로 그린 그의 많은 자화상을 보다 보면 기록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붙들어 매기 위한 안간힘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원심력이 강할수록 구심력이 강해지듯 삶의 미스터리와 두려움이 강할수록 그림에 대한 그의 열정은 커졌다. 어느 순간에는 삶이라는 무대에서 튕겨 나갈 것만 같고, 늘 박해받은 것처럼 힘들어했지만 몽크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그림이라는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그래서 몽크의 그림엔 어떤 아찔함이나 현기증이 숨어 있다. 1944년 몽크는 자신의 작품을 오슬로 시에 기증할 것을 유언으로 남긴다. 작품은 대략 1,200점의 유화와 7,500장의 드로잉, 1만 8,000점의 판화 그리고 6점의 조각이었다. 

“내가 그리는 그림은 살아 있는

생생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숨 쉬고, 느끼고, 아파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어야 한다.”

- 1889년 생클루 선언문 초안 중에서 -

그림 출처 : www.munchmuseet.no, www.edvardmunch.org